



# “범여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승산있다”

##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 인터뷰 신항락 편집국장

총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버스 투어를 진행중인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의욕에 넘쳤다. 이 후보는 “총청부터 시작된 지지를 상승은 호남과 영남을 거쳐 수도권으로 돌볼차례 반질 것”이라며 “범여권 단일후보로 나선다면 본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충분히 꺾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인터뷰 내내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때로 격정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인터뷰는 지난 24일 오후 대전 유성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실에서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됐다.

- 경선 승리를 축하한다. 국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은 산업구조의 개편을 서두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심화된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농촌 문제, 교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잖이 쌓여있다.

이 같은 시대적 현안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도개혁주의 정권이 집권해야 한다. 우파적 성장지상주의와 급진적 분배만능주의를 지양하되 이들의 장점을 아우르며 성장 속의 분배를 실현하고 계층의 상향 이동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인제의 국정 철학은 중도개혁주의다. 국민과 사회 통합을 기반으로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것이다.

-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뭔가.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구 보수에 저항하고 급진세력에 반대하는 중도개혁세력의 집권이다. 특히, 호남의 정신은 시대의 위기마다 방패 역할을 하며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왔다. 민주 개혁세력의 위기 국면에서 호남 민심이 중도개혁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 지지율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국민에게 충분히 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1월 중순까지 할 동안 저의 진심과 비전을 알린다면 지지율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총청에서 출발, 호남의 서부벨트와 남해안을 거쳐 영남의 동부벨트를 공략하는 버스 투어를 계기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호남과 충청은 예전부터 운명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이인제의 지지율은 충청과 호남, 남해안을 지나면서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에서 가속도가 붙어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 범여권 단일후보를 자신하는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황태자로서 국정과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또한, 문국현 후보는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한 측면이 있으나 정치적 실체도 없고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호남에서 조금만 더 힘을 실어준다면 50년 전통의 민주당 후보인 이인제로 단일화될 수 있다고 본다.

- 일각에서는 후보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수구·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개혁정권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또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에서 범 개혁 세력의 결집과 함께 후보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오히려 정동영 후보 측이 후보단일화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문국현 후보도 후보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정당 통합과 후보단일화가 함께 이뤄지는 원샷 대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후보단일화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11월 중순이면 후보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 무소속 후보가 아닌 만큼 당 대 당 통합 문제는 지도부와 상의하고 당원들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 ‘호남+충청’의 ‘서부벨트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을 중심으로 한 동부벨트의 지지도 중요하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500만 표를 득표했는데 영남에서 무려 300만 표를 얻었다. 이는 이인제의 정치노선인 서민과 중산층 우선 정책에 대한 지지도 불 수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과거에 비해 더욱 성숙한 국가비전과 정치철학이 충분히 알려진다면 분명 영남권에서도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이 후보의 탈당 전력과 경선 불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짧은 시절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획기적으로 개혁시키고자 하는 열망만을 앞세워



## 개혁정권 수립은 시대적 소명... 후보 단일화 적극적 ‘원샷 대통합’ 취지 공감하지만 국민 뜻 따라야

잘못된 선택을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나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세워 함께 만든 정당이다. 16대 총선에서 제가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아 영남을 제외한 강원, 충청까지 전국 정당화를 이뤄냈다.

그런데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중도개혁주의가 아니라 급진주의였기 때문에 정치노선 차이로 부득이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당에 남아 당원들과 함께 중도개혁노선을 부여잡고 함께 투쟁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탈당한 점은 참으로 후회스럽다.

그동안 약의적인 모함에 빠져 역올하게 감옥에도 다녀왔고,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 고향인 민주당에 입당할 수 있었다. 아

## ‘신경제 대특구’ 설치 300만 개 일자리 창출 전남, 아시아 공략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

들어 실업 문제를 직접 해결 것이다.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경제라는 시대상 화두를 선점했다는 지적이 있다.

▲절대권력과 독점재벌 사이에서 재능을 발휘한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인정할 수 없다. 이는 허상이다. 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경기도지사 시절 세종대 연구팀이 브리핑 한 적이 있으나 하도 한심해 돌려보낸 정책이다. 반도 국가에서 운하는 난센스다.

-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뭔가.

▲공공적인 사교육비의 원인은 공교육의 붕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방형 자율 학교 제도를 확충하고 방과 후 수업 제도를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국가가 지원할 것이다. 또한, 현재 GDP 4.4% 수준인 교육 예산을 임기 내에 6%까지 확충하겠다. 특히, 사교육비의 절반 가량은 영어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대학 내에 영어권 재외동포 학생을 초청,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는 ‘영어 빌리지 사업’을 전개하겠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한다면.

▲국가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몇 개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즉, 세목 조정,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실현, 지방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은.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은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불러왔다.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시한 대선 공약 사업은 우선적으로 배려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가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부족하다.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자와 해외투자 등을 포함, 10조원 규모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인 플랜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의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남은 한 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대 중국

전진기이다. 전남을 아시아 공략을 위한 대표적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 지역에 신경제 대특구를 지정하겠다.

광주와 목포를 축으로 나주와 순천, 여수를 잇는 1억5천만평 규모의 경제 벨트를 조성하겠다. 목포에는 경제 특구 행정청을 설립하겠다. 또한, 우주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생명공학 연구단지를 유치하겠다.

- 광주·전남 지역민께 호소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광주·전남을 포함하여 호남은 우리 50년 전통 민주당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지금은 비록 세가 약하지만 호남 주민들께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이인제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 반드시 호남의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정리=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 인터뷰 분위기는

### 과거 비해 진중한 모습 경쟁 후보 매서운 비판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의 표정은 밝았으나 간간히 어두운 그림자도 보였다. 지지율이 생각만큼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했다.

검정 양복에 황금색 넥타이를 맨 이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경쟁 후보에 대해서는 매서운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는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동안의 정치적 굴곡을 반영하듯 열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과거에 비해 진중한 모습이었다.

특히, 민주당과 중도개혁세력의 집권을 위해 뼈를 문겠다는 답변에는 사실상 마지막 대선 도전의 길에 나선 이 후보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가집 설령탕**  
**확장이전**

중가집 설령탕 신축이전 중가집의 정장을  
다들 알아 고쳐 장상한 서비스를 새로운 분위기까지  
상차 보편을 위하여 고쳐 보셨습니까?

1층: 1. 살림방, 2. 대기실, 3. 화장실, 4. 주방, 5. 고객서비스, 6. 고객서비스, 7. 고객서비스

2층: 1. 고객서비스, 2. 고객서비스, 3. 고객서비스, 4. 고객서비스, 5. 고객서비스, 6. 고객서비스, 7. 고객서비스

**중가집 설령탕** | 예약전화 062)374-0015

**무중상 자석의 차별화**  
**고품질 장풍일본식전문점 유전**

정식 1인 세트 : 12,000  
정식 2인 세트 : 18,000  
정식 3인 세트 : 25,000  
정식 4인 세트 : 32,000  
정식 5인 세트 : 38,000  
정식 6인 세트 : 45,000  
정식 7인 세트 : 52,000